



感應篇卷一

八 6
2476
1



2476
15

太上感應篇序

樂善齋

古昔聖賢之教具詳於六經四子書如大學言誠意中庸
言慎獨孟子言修身立命而極之夭壽不貳凡欲學者為
善去惡盡其在我而一切禍福死生榮辱得喪悉以聽之
於天而已不與此董子所云正其誼不謀其利明其道不
計其功澂有得於聖賢立教之微旨而非後世之有所慕
而始為善有所畏而始不為惡者所可及也然而易言餘
慶餘殃書稱降殃降祥即宋儒亦有修吉悖凶之說則夫
福善禍淫天人感應必然之理固有歷歷不爽者而本此
以為教俾中人以下皆得有所感發懲創以不昧於趨避
之路此太上感應篇一書未始非易書之遺意而與聖賢
覺世之心相為發明者也京兆太守高君幼即持誦是篇

朝夕不輟者殆三十稔自筮仕以至治郡皆身體而力行之乃猶慮人之不盡遵也夏譯以國書續以漢文繪以圖像使展卷昭然可以家諭而戶曉長安爲省會要區政事繁劇高君因土俗順人情凡所爲導民而趨於善者無不詳且至今公事之暇復手校是篇捐貲刊布俾誦之者曉然於福善禍淫之理歷歷不爽如此將見感發懲創人人知善之當爲惡之當去是足以助宣聖朝之德化而以揆諸古聖賢立教覺民之心亦無不有合焉矣余故於茲刻爲之激嘉而樂道之

賜進士及第翰林院修撰加三級奉勅提督陝西通省學政錫山王雲錦拜手題

序

世有善惡兩途如冰炭之不相侔也人皆曰此其天性使然而不知良知良能盡人皆具乃自私欲蔽而天良喪遂覺善日泯而惡日彰所謂性相近也習相遠也苟有以啓迪之微惕之欣動之則汨沒之良油然而具在世之人每以王法可逃昧心莫識且有恃勢橫行不畏國典因而肆無忌憚如是者流若與其講道學論理法則不啻浮雲之過目也孰知冥冥中自有主司登記所犯過惡大則奪筭小則降灾威極而侈者多得絕滅報所謂惡不極不足以殺身近報則在自已遠報則在子孫觀之太上感應篇其中所載俱歷歷可考非荒唐無據者此是則感應篇一書實足以啓人之良能而懲人之逸志人有不畏法紀者寧有

感應篇
不畏報應者乎故王政之外足以佐其教化之未逮者莫
太上感應篇若矣刊施者甚衆信奉者亦不少然而欲求
滿漢兼備者未可多得茲皖江臬憲朱老大人好善樂施
濟渡心切自刊漢文圖說之外今復兼滿書者一部又爲
之翻刻予叨屬吏好善同情故不禁歡忻鼓舞而共勸其
事書成掩卷而嘆曰願世之觀是書者反躬自省善則從
之惡則改之庶無負太上垂示之心而亦自求多福之道
也予不禁拭目望之矣謹序
遼海佟賦偉青士氏謹題

太上感應篇圖說序

從來天道好善而惡惡福善而禍淫故曰積善之家必
有餘慶積不善之家必之餘殃又曰要知前世因今生受者
是要知來世因今生作者是可知今生之富與貴皆前生
積善所致今生之貧且賤亦前生積惡而然倘若言奸行
僻利己妨人刻薄殘害則今之富貴者來生必致貧賤况
貧賤者乎苟能積善行仁溥施方便救濟羣生則今之貧
賤者來生必致富貴况富貴者乎且有不必要俟諸來生而
今世現報者亦甚多也所謂善惡到頭終有報只爭來早
與來遲奈何世人祇任一時之貪嗔不顧日後之報應豈
知人生若夢爲日幾何生時不善死後徒悲所謂萬般將
不去惟有孽隨身太上憫人之迷而不悟故作感應篇以

警言之欲人之遷善改過也予敬奉此篇歷有年所前作郡
時卽照許鶴沙先生繪畫圖說捐俸刊施厥後量移白下
及今觀察皖江陸續刷佈已萬餘部矣茲復得京兆太守
高君所遺感應圖說一帙滿漢兼釋裨益良深盥誦之餘
又不覺播傳心切亦曰善不厭多樂此勿倦耳正將翻刻
間而寧郡太守佟君好善同情卽授良劄劄登之梨棗共
揚仁風斯知善有善報惡有惡報上帝鑒觀鬼神照察卽
或脫得陽羅斷難逃于陰網試看篇中所載曾見放過誰
來幸惟覽者莫不敬且信焉庶善者益臻于善而否者亦
可速改自新所謂苦海無邊回頭是岸人胡弗勉而行之
倘有翻刻此書再爲廣佈吾知天必祐之子孫顯之功德
無量矣是爲序

三韓朱作鼎瞿堂氏謹識

重刻感應篇圖說序

古云天視自我民視天聽自我民聽又曰目司視耳司聽
夫天之視聽待乎民民之視聽待乎目耳而目耳猶不能
自爲視聽必有待乎形聲而已則形固需目聲固需耳矣
然而形或止於無形聲或止於無聲則目耳亦有時窮矣
是徒知以形知形以聲知聲之爲易曉而殊不知以影而
知形以響而知聲之視聽之爲親切而目耳之爲要不窮
也試看此邊之影響卽彼邊之形聲猶之今日之應是前
日之感摠之一理無有或爽是其名篇者耶此篇之由舊
序備矣惟是吾邦之刊布尚此寥寥寔爲吾人之所同恨
也是以前在戊申歲以所得本篇正文登刻今又得善惡
所報圖說滿漢字一部若干卷并付棗梨其圖像與漢字

依本秩翻窮滿字則改以東諺以滿字之吾東所不解而
俚語之爲婦孺之所同知也於是人人可得以寓目瞭然
而不勞於學士大夫之註釋指教而上可以助化濟物下
可以利己救人願我同志厚自造福如畊者之望秋惟其
播種如飢者之求飽惟其進食欲秋而不種欲飽而不食
吾知其難矣哉然而種之有道食亦有術種之嘉穀嘉穀
生焉種之稂莠稂莠成焉是惟自我所種食之甘旨則滋
養安之食之醜毒則死以隨之是亦惟我所食古往今來
未或不然而人亦未嘗僥倖於萬一而稂莠之醜毒之也
何獨於善善惡惡而曰無庸乎曰僥倖乎更願同人諉以
理無二致行之一切則庶乎其可也已

舊刻戊申歲後四年壬子藥城崔理煥星玉甫謹書

太上感應篇

太上曰禍福無門唯人自召善惡之報如影
隨形是以天地有司過之神依人所犯輕重
以奪人算算減則貧耗多逢憂患人皆惡之
刑禍隨之吉慶避之惡星災之算盡則死又
有三台北斗神君在人頭上錄人罪惡奪其
紀算又有三尸神在人身中每到庚申日輒
上詣天曹言人罪過月晦之日竈神亦然凡
人有過大則奪紀小則奪算其過大小有數
百事欲求長生者先須避之是道則進非道



則退不履邪徑不欺暗室積德累功慈心於物忠孝友悌正己化人矜孤恤寡敬老懷幼昆蟲草木猶不可傷宥憫人之凶樂人之善濟人之急救人之危見人之得如己之得見人之失如己之失不彰人短不銜己長遏惡揚善推多取少受辱不怨受寵若驚施恩不求報與人不追悔所謂善人人皆敬之天道祐之福祿隨之衆邪遠之神靈衛之所作必成神僊可冀欲求天僊者當立一千三百善欲求地僊者當立三百善苟或非義而動背

理而行以惡爲能忍作殘害陰賊良善暗侮君親慢其先生叛其所事誑諸無識誦諸同學虛誣詐僞攻訐宗親剛強不仁狠戾自用是非不當向背乖宥虐下取功諂上希旨受恩不感念怨不休輕蔑天民擾亂國政賞及非義刑及無辜殺人取財傾人取位誅降戮服貶正排賢凌孤逼寡棄法受賂以直爲曲以曲爲直入輕爲重見殺加怒知過不改知善不爲自罪引他壅塞方術訕謗聖賢侵凌道德射飛逐走發蟄驚棲填穴覆巢傷胎破

卵願人有失毀人成功危人自安滅人自益
以惡易好以私廢公竊人之能蔽人之善形
人之醜許人之私耗人貨財離人骨肉侵人
所愛助人爲非逞志作威辱人求勝敗人苗
稼破人婚姻苟富而驕苟免無恥認恩推過
嫁禍賣惡沽買虛譽包貯險心挫人所長護
己所短乘威迫脅縱暴殺傷無故剪裁非禮
烹宰敲棄五穀勞擾衆生破人之家取其財
寶浚水放火以害民居紊亂規模以敗人功
損人器物以窮人用見他榮貴願他流貶見

他富有願他破散見他色美起心私之負他
貨財願他身死干求不遂便生呪恨見他失
便便說他過見他體象不具而笑之見他才
能可稱而抑之埋盡厭人用藥殺樹恚怒師
傅抵觸父兄強取強求好侵好奪擄掠致富
巧詐求遷賞罰不平逸樂過節苛虐其下恐
嚇於他怨天尤人訶風罵雨鬪合爭訟妄逐
朋黨用妻妾語違父母訓得新忘故口是心
非貪冒於財欺罔其上造作惡語讒毀平人
毀人稱直罵神稱正棄順效逆背親向疎指

天地以證鄙懷引神明而鑒猥事施與後悔
假借不還分外營求力上施設淫慾過度心
毒貌慈穢食餒人左道惑衆短尺狹度輕秤
小升以偽雜真採取姦利壓良爲賤謾驀愚
人貪婪無厭呪詛求直嗜酒悖亂骨肉忿爭
男不忠良女不柔順不和其室不敬其夫每
好矜誇常行妬忌無行於妻子失禮於舅姑
輕慢先靈違逆上命作爲無益懷挾外心自
呪呪他偏憎偏愛越井越竈跳食跳人損子
墮胎行多隱僻晦臘歌舞朔旦號怒對北涕
唾及溺對竈吟咏及哭又以竈火燒香穢柴
作食夜起裸露八節行刑唾流星指虹霓輒
指三光久視日月春月燎獵對北惡罵無故
殺龜打蛇如是等罪司命隨其輕重奪其紀
算算盡則死死有餘責乃殃及子孫又諸橫
取人財者乃計其妻子家口以當之漸至死
喪若不死喪則有水火盜賊遺亡器物疾病
口舌諸事以當妄取之直又枉殺人者是易
刀兵而相殺也取非義之財者譬如漏脯救
飢鴆酒止渴非不暫飽死亦及之夫心起於

善善雖未爲而吉神已隨之或心起於惡惡
 雖未爲而凶神已隨之其有曾行惡事後自
 改悔諸惡莫作衆善奉行久久必獲吉慶所
 謂轉禍爲福也故吉人語善視善行善一日
 有三善三年天必降之福凶人語惡視惡行
 惡一日有三惡三年天必降之禍胡不勉而
 行之

티샹감응편

티샹이몹이 샹티화와복이정응곳이업셔
 오직사람이 스스로부르미니착은닐과악
 은닐의보복호미그림지형상을덕롬수은
 지라이러므로하늘과덕히허물가아마는
 신령이잇셔사람의범흔바정중을덕되배
 사름의샹_{덕복누과슈한을노흔곳되니그곳}
{빈천요스스하느니라도일}을{백일스느거시흔샹이라}베탈_을니_{샹이}
 덜니면가난함여우환을만히적고여사름
 이다미워함여형벌과화피_로며_질함

或集卷

경스의닐은되하.여오지아니하.며몸슬성
 신이지앙을느리워산이진흔즉죽게하.고
 또삼히성과북두성군이사람의머리우히
 잇셔사람의죄악을괴룩하.여그괴가 열 두 히
 라와산을헤앗고또삼시신사람의속이 잇
 이사람의몸속의잇셔의양정신일의니르
 러문득하늘의올나가사람의허물을말하.
 며미월회일의조왕신령이또한그러케하.
 야므릿사람의허물이잇스면크면괴를헤
 앓고적으면산을헤앗느니고허물의크고
 적으미슈빅가지나되느니라장신하.기를
 구하는자느모로미몬적되하.여올한도여
 든나아가고그른도여든물너나게이느니
 요스흔길을드되지말며어두은집속의도
 속이지말며덕을탓코공을무으며남의게
 어질미음음하.며충성과효도하.고우어와
 공순하.며몸을브르게하.야사람을교화하.
 며고독하.사람을불상이덕이고환과한사
 람을무음하.며리이니를공경하.고어려이
 를보호하.며소소하.버러지와무지하.초목

感應篇

卅九

二

이라도 오히려 상히 오지 말거시라 맛당이
 사람의 흥을 닮을 민망이 닢이며 사람의 착
 흥을 닮을 즐거이 닢이며 사람의 급흥을 견지
 며 사람의 위티 흥을 구제하며 사람의 잘 흥
 은 닮을 보미스스로 잘 흥 것 못치 즐겨 하며
 사람의 실수 흥은 닮을 보미스스로 실수 흥
 것 못치 의를 나 흥며 사람의 단첩를 드러니
 지 말며 조귀의 장첩를 자랑 흥지 말며 몸을
 닮은 무즈리고 착 흥은 들도 드며 만 흥 거
 슌스 양 흥고 적은 거슬 취 흥며 남의 계육을

밧더라 흥여도 원망치 말며 남의 계육을 밧
 거든 놀나 음조치 흥며 은혜를 베풀미 감기
 를 기드 리지 말며 사람을 주미 누엇츠지 말
 거시니 이니 른바 착 흥사람이라 사람 마다
 공경 흥며 하 흥이 도으시며 복 녹이 느라 오
 며 모든 요스 흥 닮이 멀니 가며 신령이 호위
 흥며 닮 마다 반드시 닮우오며 신선 됨을 가
 히 보라 올지니 현상 선이 되려 흥는 조는 맛
 당이 일천삼백 가지 착 흥 닮을 흥 흥 거시오
 디상 선이 되려 흥는 조는 맛 당이 삼백 가지

應應篇 卷之九

三

창의기를행함을지라후그러치아니함여을
치아니므로닐을지으며도리를어귀여뜻
을행하며악한닐노뵈능스를숨으며전드
여잔인한닐과음히행닐을지으며은근
이냥션한사람을상히오며가만한가온디
님군과어버이를업슈이덕이며그션성을
만모함그웃사람을비반함모든무식
한사람을속이며모든동참을혜방함말
함미허무함고모음을간스히함며겨레사
름과친한벗을쳐브리고알소함며곳체고
강악함야어지지아니함며모질고스오나
와제고집만유체함며시비를온당치아니
케함며향빈을흔도리의어귀오며아리
사람을몹시구러공을도모함며웃사람의
게아침함여그뜻을맛초오며사람의은혜
를받고도감격지아니함며함의를성
각함여그치지아니함며빅성을성멸히
이며나라정스를어즈러이며작상의의아
닌디미츠며형벌이무죄한디미츠며사람
을죽이고그지물을취함며사람을모함함

고그버슬을취함여항복한자를죽이고부
 족는자를욕되이며브른사람을핍노함고
 어진사람을몰니치며고단한사람을업슈
 이덕이고과약한사람을핍박함여법을브
 리고회뢰를탐음여곳은닐노뵈굽다함고
 굽은닐노뵈곳다함여가브야온죄를가적
 중한죄를숨으며사람죽이물보고노를도
 도으며허물을알되고치지아니함여착한
 닐을알되행치아니함여제지은죄를남을
 업어달의오며남의술법을막자르며넋성

현을비방함고그도덕을능멸함여나느시
 쏘기와궤를증싱잡기함여립복은버러지를
 헤치고깃드린시를놀니이며버레굽글머
 이고시의집을업지르며삿기빈증싱을상
 히우고안논시알을찌치오며사람의잘못
 함기를조이며사람의공잇스물문흐지르
 며사람을위티이함고제홀노평안함자함
 며사람의거슬덜어제게보티오며못된거
 스로뵈도흔거슬밧고오며스정을위함여
 공스를폐함며사람의능한닐을도척함여

제후제후며 사람의 착은 일을 가리우며 사
 림의 더러운 거슬드러니며 사람의 가만흔
 일을 알소하며 사람의 저물을 모손케하며
 사람의 골육을 니간하며 사람의 사랑노거
 슬씩아스며 사람의 그른 노릇을 몰도아쥬
 며 뜻을 펴위엄을 세우며 사람을 슈육하며
 이귀기를 요구하며 사람의 농스를 상히오
 며 사람의 혼인을 취치며 적이 부요하며 문
 제교만하며 구차이 죄를 면하고 벗그리지
 아니하며 남의 게은혜지은 거스르가흔 체
 응고제지은 허물은 남의 게밀우오며 지앙
 은 남의 게음 기고 몸슬닐 흠은 남의 게보니
 오며 헛된 기림을 도모하며 음험한 마음을
 적축하며 사람의 잘하는 바를 책지르며 제
 몸의 단척를 가리우며 위체를 방자하며 사
 림을 험박하며 스오나음을 부려인물을 살
 상하며 무고이포빅을 저작하며 법으르며
 네법밖과 짐싱을 드히며 오공을 훗혀브리
 오며 못인싱을 슈구로이 부려요란케하며
 사람의 짐을 파산하며 그 저물을 썩아스며

물을느끼고불을노하빈성의거척근의롭게
하며사람의카모들어즈러이하여사람의
공을문흐지르게하며사람의귀물을모손
하여사람의빨거슬궁진케하며남의영귀
함을보고귀향가고편출하기를조이며남
의부요함을보고그과산하기를조이며남
의얼골고이름보고스통함임을느끼고
며남의게지물을치고그사람의죽기를조
이며사람의게구청한다가날우지못하고
문득원망은말과미워하는마음을느끼이

며남의실체함을보고문득그어물을말하
며남의형테온천치못함을보고정보아웃
기하며남의지죄날람즉함을보고억제
하며척지르며요스흔거슬못어사람을방
자하며독약을가져남을죽이며스승을성
니오며부형을축범하며억지로치하고억
지로구하며침노하기를도하고씩앗기
를도하하며남의거슬노략하며죄집을부
요하며공교하고간스하여벼슬도드기
를요구하며상벌이고로지아니하며편코

즐기기미과도하며아리사름을포악하며
 른사름을공동하며하늘을원망하고사름
 을근증으며비람을우짓고비를현부리며모
 도여빛흙질과드도아송스하며망녕되이
 헤지어단니며취침의말을고지들어부모
 의교훈을어기우며식거슬엇으리넷거슬
 니즈며남이로올다하고미음으로고른것
 하며지물을탐하여웃사름을귀망하며몹
 슬말을우며평인을참소하며사름을혜방
 흥되니다른말흥노라닐크리며신령을헛
 부리되니정대흥여로라닐크리며순흥거
 슬비리고거스린거슬본밧으며친흥너를
 비반흥고소흥되로나아가며현디를지적
 흥여제더러온소회를증거흥며신명을크
 어드려철만흥닐을보쇼산흥며남을주고
 추후의늬우츠며남의거슬벌어오고도라
 보니지아나흥며분슈밧과정영흥여요구
 흥며힘으로우저닐을철시흥며음난과욕
 심이법도의지나게흥며음은모질고것
 흥로난인즈흥체흥며더러온음식으로사

름을 먹이며 요술노사름을 후하이며 적은
 자와 좁은도 십척이 일도라와 가바야 온적을 과적
 은 되며 거죽거슬가적참것인체하여간악
 히니 큰취하며 낭민을 업돌너천역을 숨으
 며 밀연한사름을 만홀이 너이며 탐탐을
 마지아니 하며 몸슬 말노밍쇄하야 발명하
 기를 요구하며 살을 즐저광피하고 잠난하
 며 일가골육의 성니여드도으며 남즈는 창
 낭치아니 하고 너즈는 유산치아니 하며 그
 안히의게 화합지아니 하고 그가 부를공경
 치아니 하며 미양즈공함을 도하고 상히
 투괴함을 즐저하며 취즈의게 흥실을 업시
 하고 구고척실네하며 천조신령을 업슈이
 너이며 옷사름의 명녕을 어귀오며 유익지
 아니 하며 남을 지으며 밧그로 향하느니 마음을
 품으며 스스로 악담하여 사름을 악담하며
 편변도이 미워하고 편변도이 사랑하며 먹
 는 우물과 솟건 붓드막을 타고 단니며 음식
 과 사름을 먹어 남으며 갖난즈식을 상히오
 고 복중의 잇는 틈을 쉰치며 흥시 괴벽하

戒善篇

大文詳

八

기를 만히 하며 그 몸 날과 남평 날의 노리 부
 르기와 춤 추기 하며 초하로 날과 식벽 식전
 의 성니고 부르지지기 하며 북편을 향하며
 춤 밧고 오름 누기 하며 부엌을 향하며 노리
 흥고 후고 음 흥며 또 부엌의 불 노향 뛰우기
 흥며 더러 온 나무로 밤 짓기 흥며 밤의 너러
 나 벌거니 단니며 여덟 가지 명 일 날 님 춘 춘
분 님 하
하지 님 춘 춘 분 님 동 동 지 지 사 사 를 를 형 형 벌 벌 흥 흥 며
니 이 여 여 뽕 뽕 가 가 지 지 철 철 기 기 나 나 라 라 사 사 를 를 형 형 벌 벌 흥 흥 며
 흐르느 벌을 향하며 춤 밧으며 무지 게를 가
 라 치며 삼 광 일 월 성
신 이 라 을 손가락 질 흥며 일 월
 을 오리 보며 봄의 사냥 질 흥며 북을 향하며 야
 몹을 말 흥기와 옥 흥기 흥며 무고히 거 북을
 죽이고 비암을 썩리느 이러 뜻 흥 죄를 범 흥
 자느 스 명 지 신 이 그 죄 의 정 흥 을 조 초 귀 와
 산을 췌 앓느니 산이 진 흥 죽을 지 라 또 흥
 죽드라 흥여 도 남은 척 망이 잇셔 양 화 조 손
 의 게 밧 출 거 시 오 또 사 름 의 지 물 을 회 흥 취 흥
 는 자 느 그 처 조 와 식 구 를 회 여 그 갑 슬 갑 게
 흥여 점 점 스 망 게 흥고 죽 시 스 망 치 아 니 르
 라 흥여 도 곳 슈 지 와 화 지 며 도 령 의 지 앙 이

며 실물응기와 질병의고성과 구설의지화
 의이러듯응모든괴로운날이잇서그망녕
 되이취응갑을갑게응고또의미이사들을
 죽인자는죄또응죽을지니이는갈을밧고
 와셔로죽이는즉시오불의에지물을취응
 느자는비컨디누포 물어마른포육이라
면죽는거시로
 요귀응고짐독응살노히갈응는것조희여
 잠시비부른듯응나필정죽기의니르니
 라되적모음가지미착응되니러나면비록
 착응닐을미취응치못응엇시나길응신령

이발셔셔로고후구모음가지미악응되니러
 나면비록악응닐을미취아니행응엇시나
 흥응귀신이발셔셔로느니사람이혹일즉
 이모로고악스를행호미잇더라응여도이
 후의부되고치고되웃취응야모든몸을닐
 을짓지말고여러가지착응닐을밧드러행
 응면오린후반드시길응며정스를엇을거
 시니이니른바화를도로혀복을슴는법이
 리이러므로길응사람은말이선응고보오
 미선응고행호미선응게응나일일지니

의이세가지선을행하면삼천의악들이
 반드시복을나리우실거시오용의사람은
 말이악하고보오미악하고행위미악하게
 하는니일일지니의이세가지악을행하면
 삼천의악들이반드시화를나리오시리
 너사람이엇지힘써행치아니하리오

太上感應篇圖說目錄

卷一

至孝之報 不淫之報 好義之報 宰相善報
 宰相惡報 大將善報 大將惡報

卷二

刑官善報 刑官惡報 史官善報 史官惡報
 言官善報 言官惡報 養民官善報
 養民官惡報

卷三

太監惡報 吏書善報 吏書惡報 士人善報
 士人惡報 農人善報 農人惡報 工人善報
 商人善報 商人惡報

卷四

臣道善報 臣道惡報 子道惡報 夫婦善報
夫婦惡報 兄弟善報 兄弟惡報 朋友善報
朋友惡報

卷五

婦人善報 婦人惡報 放生戒殺善報
放生戒殺惡報 方術惡報

太上感應篇圖說卷之一目錄

至孝之報

趙居先

董永

劉殷

不淫之報

曹鼎

何澄

王華

好義之報

竇禹鈞

商輅

鍾離瑾

裴度

馬涓之父

費文

應尚書

馮琦之父

張彥明

張百戶

袁公

于令儀

甯崇禮

趙秋

王忱

宰相善報

司馬光

張齊賢

李昉

王旦

宰相惡報

趙普

王安石

蔡京

李林甫

盧多遜

丁謂

楊再思

大將善報

鄧禹

曹彬

何真

許進

大將惡報

白起

婁師德

趙居先



感應篇

至孝之報

京師趙居先父年九十一母年九十四性皆嚴急居先夫
婦侍奉勤謹孝行克諧每夕焚香為父母祈禱三尸上奏
天帝遣飛天大神每日監察見其心嵩意一賜七子三壻
皆列官職居先身證仙果

은 거현의 부벽 부모의 기물을 지극히 하여 미야의
분향은 그의 부모의 숙근한 공의 추위인 후던
상제 비현된 신은 보의 사날 마다 그 정성으로
슬피 시고 이에 칠근 삼여를 두게 후사 다란 작
은 더우지 거현으로 신 현 정라 글은 어게 후
신라

董永



西漢董永家貧無以葬父賣身傭工得錢營葬上帝憐之
降織女為妻日織一絹贖其身產一子織女昇去景帝時
永舉孝廉為中尉子仲舒武帝初以賢良對策第一仕至
江都王太傅為世大儒

서한 된가 동영이 집이 가난 하여 부상을 당하
미 강스 흥은 길 이어 업느니라 모음을 팔아 영강
흥은 사름의 고공이 되 엿겨 나 생 제 어 엿 비 너
기 샅 직 너 를 나 리 위 그 처 를 삼 으 시 고 날 마
다 비 단 흥 된 식 그 못 으 큰 속 가 흥 시 고 귀
즈 르 는 두 게 흥 시 니 이 곳 동 중 의 라 흥 후 의 장 원
급 제 흥 여 강 도 왕 뒤 부 벼 슬 은 흥 나 라

劉殷



晉劉殷七歲能盡孝養曾祖母王氏隆冬思董已不食者
一夕殷乃號泣于澤中哭聲不絕仰冀皇天普垂慈憫忽
若有人言曰止止殷收淚視地復有董生持歸奉母又夜
夢神謂曰西籬下有粟寤而掘之果得十五鍾銘曰七年
粟以賜孝子劉殷使得備養

린 령 누은 이 칠 세 의 능 히 효 야 흥 더 니 증 조 모
왕 시 능 등 의 근 처 리 큰 버 기 려 흥 거 들 은 이 못 가
온 뒤 나 아 가 하 늘 의 빌 먹 은 기 큰 낫 치 지 아
흥 더 니 흥 들 연 사 름 의 소 리 이 처 구 치 라 흥 들 듯
흥 거 들 은 큰 물 은 거 두 고 흥 흥 큰 보 니 문 두 근
치 이 처 처 히 나 는 지 라 키 여 도 라 와 봉 야 흥 흥
고 흥 흥 의 신 명 이 니 르 되 처 현 은 이 려 곡 식
이 이 라 흥 거 들 처 야 고 흥 흥 큰 되 니 라 영 삼 오
중 곡 식 이 이 고 흥 흥 은 속 엿 시 되 칠 년
곡 식 으 로 효 조 누 은 은 주 노 라 흥 엿 더 라

曹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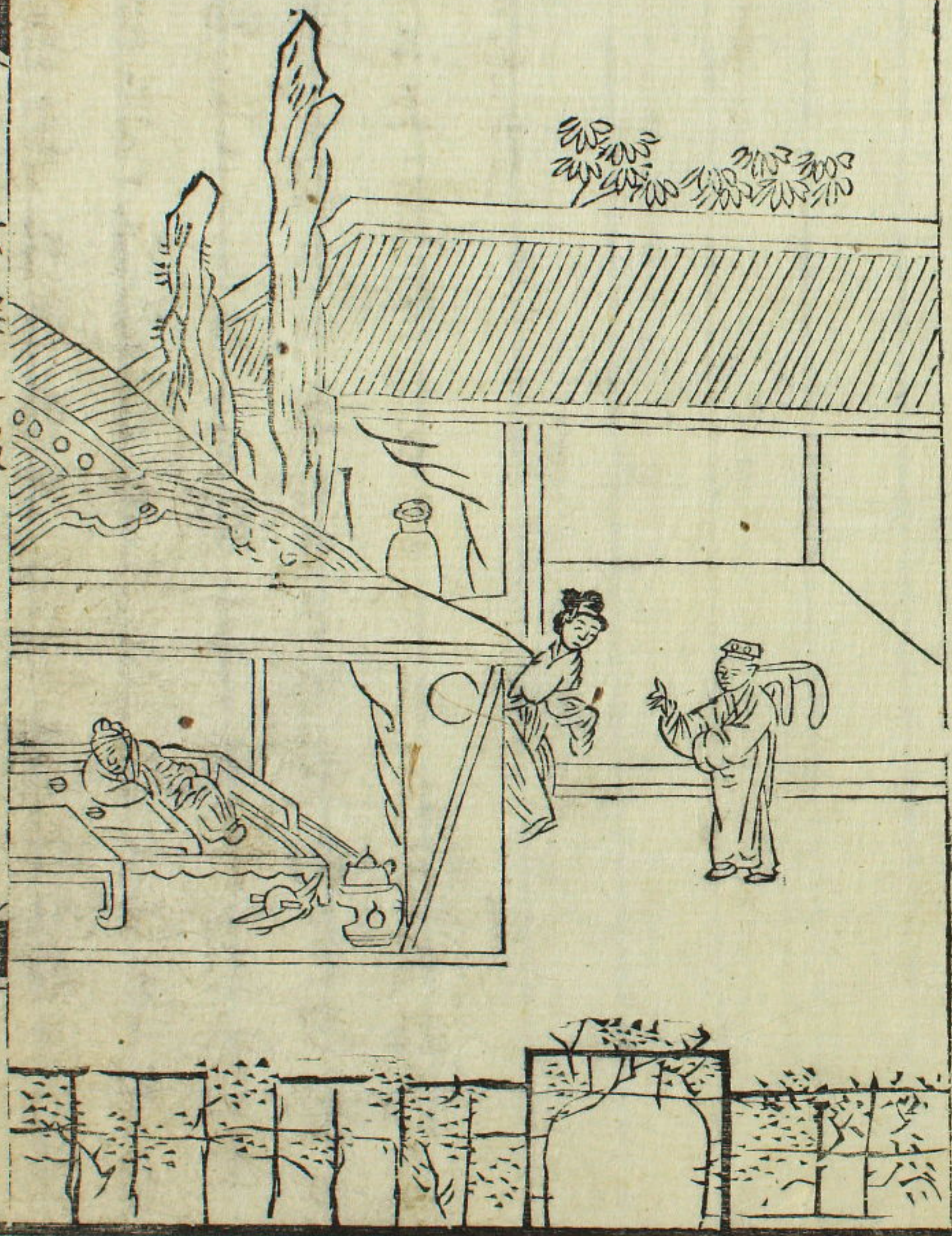


宣德中曹文忠公鼎以歲貢授代州學正不就願得煩劇
 自効改授泰和典史因捕盜獲一女子於驛亭甚美意欲
 就公公奮然曰處子可犯乎取片紙書曹鼎不可四字燒
 之終夜不輟天明召其母家領回後大庭對策忽飄一紙
 墜几前有曹鼎不可四字於是文忠沛然狀元及第

선덕년간의 조문충공의 병은 너니 미시의 취
 화현년 스벼슬은 흥희시니 득취은 자일은
 시은녀저 큰어스으니 심히 아 릅다 비공의
 계향 흥는 뜻이 이시논 지라 공이 그 뜻은 알고
 본연 흥여외근 비엇지 거듭 될런 인 흥여
 낮의 취녀를 너러 이리 오 흥 조 각 조히 르
 가 취 조 비 본 가 라 메 저 큰 위 본 의 스로 기 르

應原篇
 一
 백이진호로록마지아나호리날이브러이
 그어미르르불러맛적복의엿더니그후적은시
 의나아가그은은지을세호른변호조가조
 희아래희나려지며조니불가관네를지잇는
 지라일노조초큰싱각이신과호여장원
 급제호니라

何澄



感應篇

一 不淫之報

六

何澄以鑿著名同郡孫子久病不愈召澄數次其妻引澄
密說良人病久典賣將盡願以此身酬藥之價澄正色曰
娘子胡為及此但安心勿憂當為療治苟以此相汚不惟
使我永為小人娘子亦失大節縱免人責天譴其可逃乎
其妻慚感而退澄因假寐恍見一神引至公署主者曰汝
行鑿有功且不於艱急中亂人婦女奉上帝勅賜汝一官
錢五萬未幾東宮得疾詔澄一服而愈賜官賜錢俱如其
言

하징이란 사람은 의술이 노일 흠이 나다 못
나동니사름손개이쇠병드러어오리나지못
함미징은큰척음여두어번나아가서너손가
의척징은큰척음여가만이일너와가부의
병이오리나지못함이가산이랑진음너의약의
슈리큰갑음큰길이어본지라원견되이몸이
로써약갑스름갑스름척음노라징이척음척음외
남척음지이런말은음시노다만아심몸
너음오시면너맛랑이치료음지너곳음여이
닐노인음여쇠로더러인즈니소인이되려
나라남척음척음철음사름이되려거시너
음가히면너못음리로다그척부스름며감격
음여몸너가나라라이징이몸이몸음여상
이비척음은너너음마음의너너음신명이
이쇠닐너와가대의척음은척음여몸이만고
금음척음의사름의부너너어즈러이지아음너

상계이름라이더기샤니른흔벼슬과돈오만냥
 을주시니라하더우오리지아우하동종의병환
 이피시며징의약은진어하샤흔첩비의나으시
 표석하여벼슬과돈을주시되다그말라호호
 여스허라

玉華



餘姚王華陽明先生父也館一宦家宦多妾無子夜溪一
妾奔之公峻拒妾曰此主人意也出一帖示曰欲乞人聞
子公署其後恐驚天上人遂辭館去次年宦室設譙道士
拜章久不起尋乃曰適至天門見放來春狀元榜以此遲
緩問記名否答曰未見名只見馬前綵旂上一偶聯欲乞
人間子恐驚天上人華果狀元及第生陽明先生伯爵世
襲

여조는 왕화노양명선생의부친이라 미시의
화가의주인하시더니주인이무엇하여첫일이
무엇하되종사아들이어디지라일은야심하
고첫일이공의곳이나와마로되이노주인의사건
비라하노는글쓴조현은여비나하시되
욕결인간저라하니이노인간의씨름비르고
적흥이라공이그뒤희쓰되공경년상이이
라하니이년상사름은노를된가흥이라
인하여하직고가드니그후그집의씨름은
미도씨름이름나고어디여우리의후나말
하되맛춤터문의나르러명춘장원방을
보리라더되엇라하거늘주인이장원의성명
은무르니답왈그인함은보지못하노라만장원
의말아담히하노상과르네이시니엇시되욕결인
간저공경년상이이라하시더라하니글을과거
의왕해장원집회하노양명선생이를나하니
벼슬이후비의나르러되노수습봉하니라

實禹鈞



宋實禹鈞燕山人也先為五代時諫議年三十無子夢其父曰汝宜早修實行緣汝無子又無壽耳禹鈞唯唯鈞為人素稱長者先有家僮盜用錢二百千慮事覺有女年十二三自寫券繫女臂云永賣此女於本宅償所負錢自是遠遁鈞見而憐之即焚券囑其妻善撫之及笄為之擇良配使得所歸復贈錢二百千其僕聞之感泣還而戴罪又於元夕在延慶寺得遺金二錠銀數十兩持歸明旦至寺候失主還之其人得以贖父罪又同宗外姻有喪不能舉者出錢葬之凡二十有七有女貧不能嫁者出錢嫁之凡二十有八故舊相知有窘困者隨多寡貸之使之貿易由公活者數十家四方賢士賴公舉者不可勝數又於宅南建書院四十間聚書千卷禮文行之儒為師凡四方寒士

裴度



唐裴度屢黜場屋相者告曰公形神稍異若不貴必餓死
 公偶遊香山寺見一婦置繒紵於欄杆之上祈佛良久不
 取而去公知其忘追之不及待亦不至攜之以歸遲明往
 候之其婦果來問之婦曰父以罪被繫昨懇人得玉帶一
 犀帶一以贖父罪不幸失去不測之禍無所逃矣公遂還
 之婦願留其半公不受後數年相者見之大驚曰公陰德
 及物前程萬里非吾所知也度果拜相封公官太傅壽七
 十六五子皆貴

당나라 비도은 후의 여권반 나저의 남방 후려나 생모
 노려 보은 나를 의 의 형신 이가 장 이상 후나 크게 되
 리 못 후면 반죽시 크며 후고 후려나 이 후은
 항상 노 의 가 노려나 후부인 이 비환 비을 날간 후의

費文



明費文廣信人年逾五十授徒楚之蒲圻二年方歸登岸
轍步聞婦哭甚哀問之曰夫負官銀將鬻我以償我去幼
兒失哺必死是以悲耳翁詢所負曰十二金翁曰我同舟
皆我江右人人捐一金足完爾夫之事勿悲也返而登舟
同行者皆不應公捐兩年束修盡與之未至家三日糧盡
衆鳩價買米翁囊已盡眾皆謂之或憐而招食之公不敢
飽化至家語婦曰吾舟中忍飢二日矣速為炊婦曰顧安
所得米乎公曰鄰家借婦曰借貸已多尚候汝歸償之婦
而復借可奈何翁告以故婦曰既如此吾有山蔬採之可
充飢攜筐登山採苦菜煮爛同一飽既就寢翁熟鼾婦念
明晨又匱展轉不寐忽聞牕外呼曰今宵採苦菜作飯明
歲產狀元為兒婦蹴翁曰此神明告我也夫妻同起向天

은일의관호여의이즘들고취는변이를방식
 을러구취호여차공을이름지공하한다호출어근다
 창백의취부를너말을오날방의구취를귀여법을
 뒤신호변년의장원을노출아를호출은호
 라호외를체문은취와와이호시평이호리의
 호음이라호호리의이여하를의변사호음일
 이여류호여평년의리호아를이호출노하창
 원구체호변출이적생의리호호의뒤취호
 의봉착은호백은다라

應尚書



好義之報

陝西袁公值闖賊亂父子失散流寓江南欲娶妾生子適
 有人賣一婦與銀三十兩婦至袁宅背燈而坐哭不已公
 詰之婦曰我無他故止以家中貧餓難忍夫欲求死妾故
 賣身以活之念平日夫妻情篤一旦改事他人故不禁傷
 痛耳公惻然不忍犯與婦各坐竟夜次日送還其夫除身
 價不取仍贈以百二十金令之治生夫婦泣拜而受乃相
 議曰袁公厚恩如此何以報之當覓一閨女送袁公與之
 生子屢求未得偶至揚州遇數人領一童賣貌甚清俊彼
 夫私計我未得女子今先買此童伏事袁公何不可因問
 身價幾何曰每歲一兩童十二歲遂取出十二金沽之渡
 江送至袁公家袁公諦視之則其子也父子抱頭痛哭繼
 而大笑

此其後也... 夫私計我未得女子今先買此童伏事袁公何不可因問
 身價幾何曰每歲一兩童十二歲遂取出十二金沽之渡
 江送至袁公家袁公諦視之則其子也父子抱頭痛哭繼
 而大笑

이들을 날... 지아 비를...
 빙기 이시...
 감...
 장...
 라...
 보...
 선...
 계...

于令儀



感德篇

好義之報

二十一

曹州于令儀性長厚家富盜入其家擄之則鄰人之子也
令儀曰何以爲盜對曰貧耳問需幾何曰得十千則衣食
足矣卽以十千與之旣去呼之回謂曰汝素貧夜負十千
回家必爲人所詰畱之至明而去盜大感愧爲良民令儀
又延名師教子姪之秀者後子伋姪傑倣皆舉進士

은즉후우녕의노승후장은자미가강여허다디
더니이후은도취이저미의도출어노지라크를취은로
잠고다르스리은사출의저서이라부라와를어스지을
여도취질후은다와를집미가나후이라후저을
은은와를어스나후면가나을번후나뒤와를심
천만후면의서이후후취크라후나주시심원
은후어이의가외를도시불어나아와후여와를네
분취가나후은사출이와방의심원을와지는집
의후라가면사출의후은크를지나너은너
두어와가나와이분리든가외가라후은평명의
나노취이크대감적후여형심은을로치
낭민이와나라공이저집의착후스후을두어
저의은은은후나후의저음미와리후와크다방
이모다급취후나라

趙秋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趙秋



趙秋字子武朝歌人輕財好施鄰人李玄度母死貧無以
 葬與以二牛資葬焉他日秋夜行見一老母與金一瓶曰
 子能葬我是以相報子五十後當富貴幸善視我子玄度
 也秋後果官極品

동쪽은 크고 사물들이 다 짐을 들은 가뭄이 내리니 사물들
 죽기조를 죽히고여 죽고스사물들 나현 드의 상을 들
 하여 가난한 자들을 장수함을 수 업스니 불은 불고그되
 이를 죽어 장수케 하였더니 라의 의 방의 의 힘은 하라가
 노를 들은 다나 황을 들은 번을 죽어와를 죽이는데 남을
 장수함을 사나 이를 죽어감노라 죽이 유부인의 옷과
 부귀함을 지라 하였나 죽어라면 번을 이 죽고의
 거두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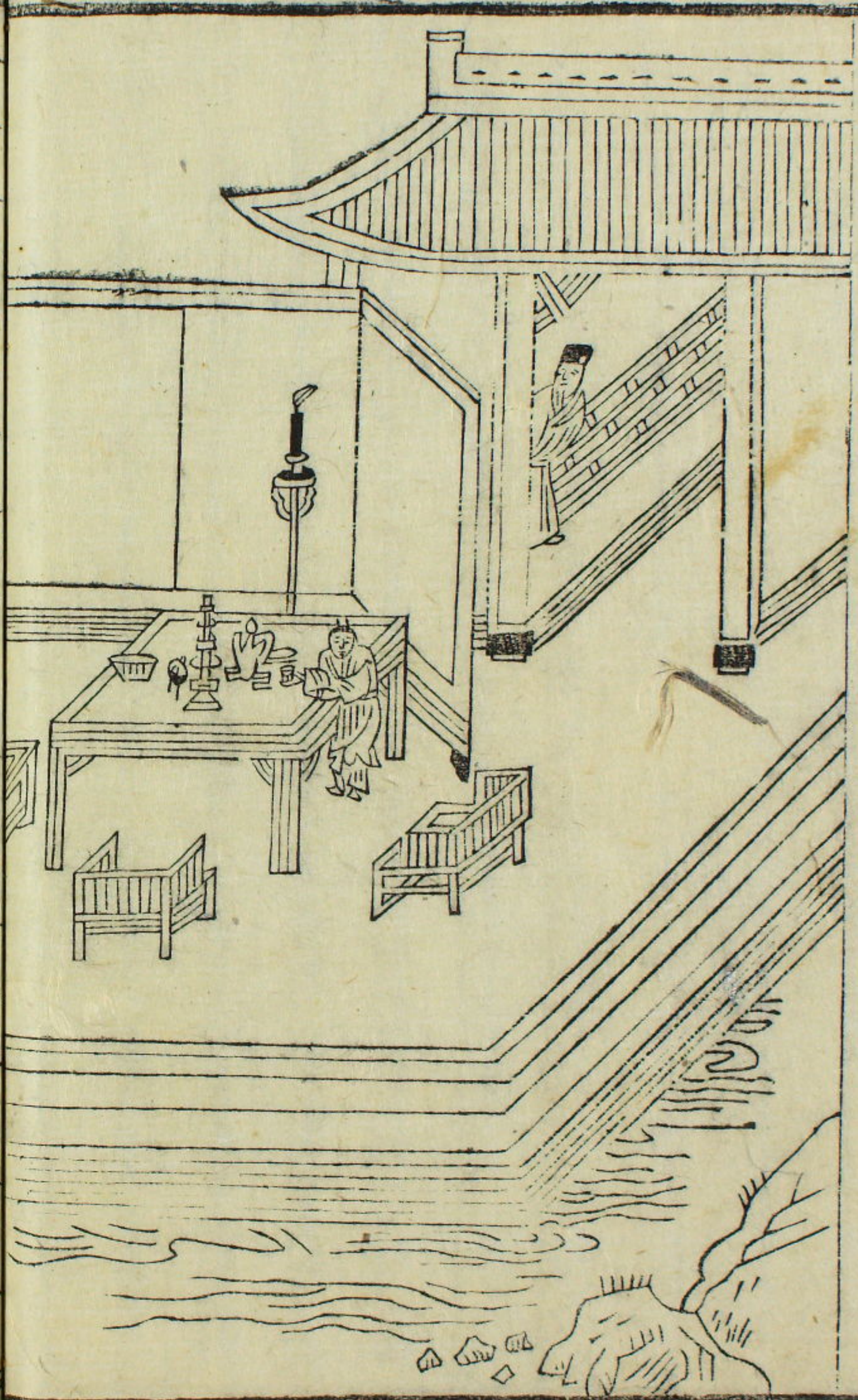
王忱



王忱字少林詣京於空室中見一書生謂我洛陽人旅舍
病篤命在須臾腰下有黃金十斤願相贈乞葬骸骨未及
問姓名而絕忱鬻金一斤營葬餘金悉置棺下後數年縣
使忱署亭長有馬馳入亭中而止大風飄一綉被墮其前
言於縣縣以歸忱忱後乘馬到洛馬奔入他舍主人見而
喜曰今擒盜矣忱具說其狀主人曰卿何陰德致此耶忱
備說葬書生事主人驚慟曰是我子姓金名彥蒙卿大德
葬兒之恩未報天以此昭彰盛德使予知所哀敬耳遂往
京師載棺歸於墓側重斂之次餘金宛然厚謝忱不受自
是舉洛知名後舉茂才官至上卿子孫貴盛由是王氏之
族甲於洛陽

王忱字少林詣京於空室中見一書生謂我洛陽人旅舍
病篤命在須臾腰下有黃金十斤願相贈乞葬骸骨未及
問姓名而絕忱鬻金一斤營葬餘金悉置棺下後數年縣
使忱署亭長有馬馳入亭中而止大風飄一綉被墮其前
言於縣縣以歸忱忱後乘馬到洛馬奔入他舍主人見而
喜曰今擒盜矣忱具說其狀主人曰卿何陰德致此耶忱
備說葬書生事主人驚慟曰是我子姓金名彥蒙卿大德
葬兒之恩未報天以此昭彰盛德使予知所哀敬耳遂往
京師載棺歸於墓側重斂之次餘金宛然厚謝忱不受自
是舉洛知名後舉茂才官至上卿子孫貴盛由是王氏之
族甲於洛陽

張齊賢



張文定為江南轉運時嘗有家宴一奴竊銀器數事於懷
 中公自簾下熟視不問後公為相廝役多列班行此奴乘
 間以請公曰我不言爾乃怨我爾憶盜銀器事乎我懷之
 三十年不以告人雖爾亦不知也吾備位宰相志在激濁
 揚清敢以匪行者薦耶念汝事吾久賜錢三百千任擇所
 往奴震駭拜泣而去

강은 원도 현이 일즉 짐의의 작취 술의 후종의
 은로르스루어가지를 드워후어 풍의주의 감로리
 공이 발족을 이이 바리본은 일은 회이 나후의
 니후의 공이 원승을 후의 짐사를 이의 후의
 비로라구실로 후의 그중은 후의 후의 지이 나후
 그중이 중은 이 원승은 지라 공이 일의 후의

李林甫



李林甫陰險不測數興大獄素所忌惡者株連殺之為相
 既久天下怨望常別創一宅名偃月堂每陰害人即入此
 中搆息極慮喜悅而出其家即破矣將敗見一物如人遍
 體毛如猪鋸牙鉤爪目如電光甫連叱不動遽命射之毛
 人跳入前堂青衣遇而暴卒經於厩良馬亦死未幾甫白
 日見鬼擒拿七竅流血而死後其壻告甫陰魘呪詛奪
 爵剖棺正罪戮尸籍沒其家元和六年惠州震死一娼脇
 下有朱書云林甫後身淳熙初漢州震死一女亦有朱書
 云唐朝李林甫為臣不忠陰賊良善三世為娼七世作牛
 作牛訖世生生永墮水族

니의몸은 강아치와 같고 능이 나 의인 이고 그 혀는 혀를 찌는 혀
 이고 그 리 옥을 닮고 혀의 위는 혀의 위와 같은 사물을

盧多遜



盧多遜見宰相趙普位望特重恣意毀之其父戒曰趙普
 元勳而小子毀之能無禍乎不聽百計陷害於是普罷多
 遜拜相既而事狀明白趙普復相多遜削官流竄朱崖及
 赴貶所食於道傍有逆旅媪能言京邑舊事遜問之蹙然
 曰我本中原士大夫家有子任某官盧多遜作相令枉道
 為不法事不從傾以危法盡室竄南荒骨肉淪沒唯老身
 流落山谷彼盧相者傾賢怙勢終當南竄倘幸未死或可
 見之耳多遜默然促駕而去

多遜是也... 趙普... 盧多遜... 見之耳多遜默然促駕而去

何真



元末東莞人王成作亂何真起義兵除之募人能縛成者
 予鈔十千於是成奴縛以出真如數賞奴因令人具湯鑊
 駕車上成懼以為烹已真乃縛奴烹之使人鳴鼓推車號
 於眾曰世人毋如奴縛主以罹此刑也人服賞罰之公附
 之益眾

元末東莞人王成作亂何真起義兵除之募人能縛成者
 予鈔十千於是成奴縛以出真如數賞奴因令人具湯鑊
 駕車上成懼以為烹已真乃縛奴烹之使人鳴鼓推車號
 於眾曰世人毋如奴縛主以罹此刑也人服賞罰之公附
 之益眾

아슬아슬한 부근을 이르러 기를 감가사주하여
 으러진 풍의 어둠이 어둠의 어둠이 어둠이 어둠이
 라 풍이 어둠의 어둠이 어둠이 어둠이 어둠이
 이 어둠이 어둠의 어둠이 어둠이 어둠이 어둠이
 라 어둠이 어둠의 어둠이 어둠이 어둠이 어둠이

許進



許進爲都御史冒雪夜行二十里以擣哈密得遺種八百
 人將校以爲封侯可得進曰行師之道期在綏安耳吾安
 忍以多馘爲功且此屬窮而請命殺之逆天逆天者無後
 八百人皆不死公三子皆秩爵尚書

하진 이 도 어 스되 여 설야 의 이 십 구 열 일 인 호 여 오 된 이 기 열 일
 치 목 각 기 친 종 나 팔 열 백 인 을 잇 구 제 장 이 된 호 되 이 제
 팔 열 백 인 을 잡 아 수 급 을 드 되 면 병 호 무 들 가 히 잇 구 되 라
 호 구 직 왕 을 힘 호 구 호 호 되 는 빈 구 호 호 인 왕 을 게 호 이 호 열
 이 지 차 가 말 히 죽 여 호 호 살 구 여 호 이 구 되 호 열 구 여 호 열
 을 열 일 인 구 구 이 의 한 을 을 기 구 되 이 라 한 을 을 열 구 호 열 구
 입 다 호 호 팔 열 백 인 을 노 하 죽 구 이 지 아 구 호 여 구 구 구 구
 상 의 상 저 다 되 호 여 벼 들 이 상 저 의 구 열 구 구 구 구

白起



威權篇 一 大將惡報

五十一

秦與趙相距常平秦遮絕趙糧凡四十六日趙括計窮親
出搏戰秦軍射殺之卒四十萬盡降白起盡坑之僅遣少
者二百四十人歸趙秦王又欲伐趙白起諫不可王怒賜
劍杜郵起憤曰吾何罪于天而至此良久曰趙降卒四十
萬我詐而盡坑之是足以死遂自殺

백거노진재이되여들름을치름의처를재의진
호은진이등근의냉도름을은우다들라말이계모공진
호여치호히정호타의조구고근호심백이리의계항
북호나백거죽여다구시름은거우호라갈척이
백거십일이타구호진왕이들름을치려호려
백거가가지아다호호를하호려왕이호호여권행
북단호갈호를우어호진계호나거북호호여말호
우호리를호호의어호호호호호나호호의말
호나라항호를호십일호호를호호여다구시름은
시나호리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나라

죽고 엿이나 죽되 사탕이 인물의 지스구름을 뱀아름
리신의 직한 심은 이장 후스진 후를 지워 후려
니 죽을 후려 평신인물 앞 후려 후의 인물이
못은 사탕의 화의 인물이 평인물은 신 후려
각각의 인물이 죽스 죽스 인물이 이회 인물이 지
스름을 각 후려 인물이 죽스 죽스 후려 후려 지아
후려 죽스 후려

